

"이제는 민관 협동 체제로 환경 문제를 극복해야"



김천주/대한주부클럽 연합회 회장

과거부터 일본은 쓰레기 정책을 소각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회수된 열을 화력발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느낀 바가 컸는데, 본인은 지난 10월 협회의 배려로 일본을 방문,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일본의 쓰레기 재활용 현황을 돌아보면서 소각 우선 주의에서 재사용, 재활용 정책으로 바뀐 것을 보고, 왜 우리는 주관 부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 문제 하나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거창하게 환경 문제를 논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씻을 수 없었다. 위안이라면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임원들과 회원사 직원들의 진지한 연구 태도와 열의가 있어 미래가 어둡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선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이 서 있고,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사명감과 함께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듯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사업을 공무원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단체나 개인을 폭넓게 참여시켜, 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란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주고, 소각장이나 재활용 공장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예술성 있는 건축 양식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려는 모습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정부도 환경 측면의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쓰레기로 보지 말고 자원으로 생각해야 하며 재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소각 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 계획을 추진, 이에 따른 정책을 단기, 중

기, 장기로 세워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국민이 보는 정부, 시민이 보는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 부족만 앞세우는 것 같고 모든 업무를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만이 해야 안심이 되고 이에 동참하는 개인은 지나치게 어려운 법만 내세워 좌절시키고 있다 보니 쓰레기 처리 문제 하나조차도 소비자들에게 부담만 주고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분리수거 제도만은 일본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만큼 잘 되어 있지만, 쓰레기종량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소비자들을 강요했지만 정부는 자신의 몫인 시설, 장비, 수거 체계 등의 연구와 준비 부족으로 결국 국민에게 원망과 불신만 살까 봐 염려가 된다.

이제 정부는 모든 것을 정부만이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전문 업체를 참여시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분담, 역할, 책임의 민관 협동 체제로 나갈 때 환경 문제뿐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과 시민들을 편안히 해준다면 국민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다.



오타 농수산물 시장에서 스티로폼 회수·재활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김천주 회장